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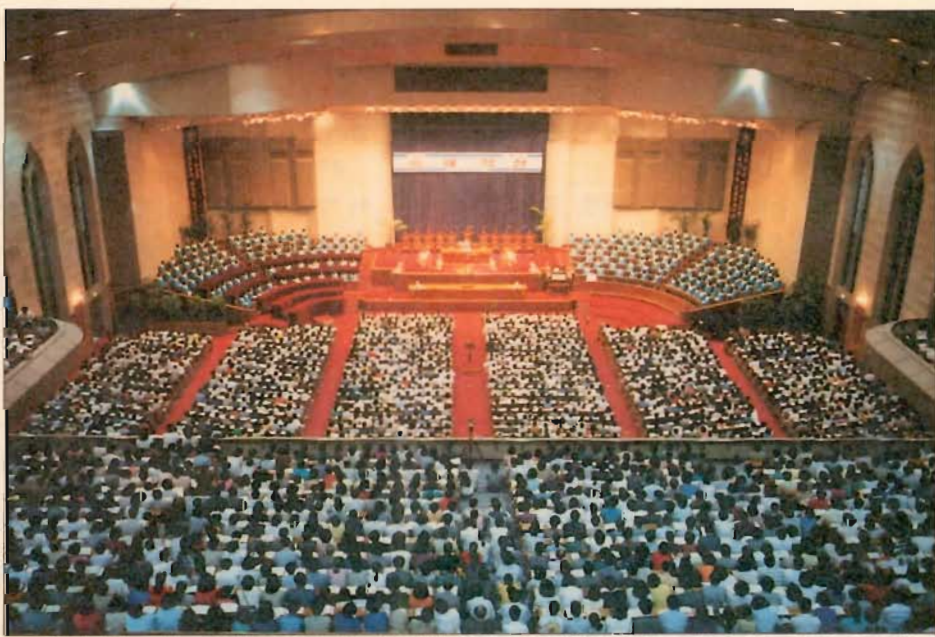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특 홍 해 작 전 보

홍해가 갈라진 현장을 보라

6일 비상새벽기도회에 전교인 총동원

제3차 홍해작전으로 전교인 새벽을 깨우다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의 홍해를 건너기 위해 6일 새벽 5시에 중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물러 나와 본당은 물론 갈릴리 홀까지 폭 넓은 가운데 제3차 홍해작전 첫날 비상새벽기도회를 가졌다.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목표로 제3차 홍해작전이 6월 6일 새벽 5시에 북중의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중현의 전교인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어두운 새벽을 깨우며 멀리는 수원, 문산, 남양주에서 가깝게는 교회 부근에서, 가족끼리, 구역원끼리 승용차에 동승하여, 혹은 걸어서 역삼동 언덕 위의 중현교회로 달려오는 이들의 표정에서 감격과 기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홍해작전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예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던 중현의 성도들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번 작전에 참여하면서 준비된 마음을 여는 모습이 생생하였다.

차량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주차한 후 본당 계단을 올라가는 성도들은, 새벽 5시에 되어 가면서 본당 1, 2, 3층의 좌석을 꽉 메웠고 복도에까지 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갈릴리 홀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비디오를 통하여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였다.



교회 안팎으로 몰려져 대정소를 함으로써 힘을 다해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하였다.

최서원 감독이 지휘하는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이종윤 위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홍해작전은 개인적으로는 회개운동이며,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운동”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홍해작전에서 절제운동의 실천으로 나눔의 장을 열자.”라고 강조하였다.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남전도회는 교회 외곽을, 여전도회는 본당, 소석관, 전교관을 교구별로 나누어 대정소를 하였다.

빵과 우유로 아침식사를 한 후 1, 2교육위원회 산하 각부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최자의 인도하에 각각 글짓기, 그림그리기, 포스터그리기, 표어짓기에 참여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앞으로 20일까지 계속되는 홍해작전에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아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의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바란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 승전을 위한 목회기도

소망과 빛을 비추는 교회되게 하소서

이 종 윤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주시고 개인적, 국가적인 난국을 당하여 비상새벽기도회로 모이며 제3차 홍해작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며, 민족과 사회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를 삼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위하여 가정이 먼저 경건하게 하여주시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 생활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에 신실한 선포가 중현의 강단에서 바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풍성한 열매가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세상과 역사 앞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 사회가 너무나도 악해지고 부패하였사오니 모든 사회악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주시옵소서.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릇된 가치관이 온 땅에 가득하오니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 민족이 거둬가는 은총을 힘있게 하여주시옵소서. 복음화한 통일 조국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당신의 은총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을 비상새벽기도회 첫날 드린 것이다.)

천국시민 영성찬치 오늘 저녁 7시부터

다음주 제2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나눔의 센터 물품 현재 접수중

홍해작전 행사의 하나인 천국 시민 영성찬치가 오늘부터 12월까지 본당에서 저녁 7시에 개최되어 “천국시민의 경건·경제·윤리 생활”에 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과소비, 자취봉조를 배격하기 위해 홍해작전 기간 동안을 절제 기간으로 삼는데 특별히 15일에는 금식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헌금은 17일 주일에 드리게 된다.

또 절제와 나눔을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18일과 19일에는 나눔의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성도들은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료, 장난감, 학용품, 책 등을 각 교구간사실로 출품할 수 있기를 바란다.

17일은 제2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인데, 이날도 중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작전에 참가해주시길 바란다.



이 중 윤 목사

제3 차 흥해작전

비상새벽기도회 설교요지

천국시민의 자질

첫째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어떤 학자는 산상보훈을 가리켜 ‘천국 시민의 대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산상보훈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영적으

로 파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파산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이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비어지면 그리스도께

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슬픔을 겪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슬픔에는 실체나 이별, 죽음 등으로 인해 오는 본능적인 슬픔과, 잘못을 범한 후에 느끼는 후회의 마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슬픔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슬픔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을 말합니다. 이것은 회

개에 이르게 하는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죄문제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눈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둘째날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온유는 겸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겸손과 온유한 심성의 표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또한 관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웃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날마다 교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시37:11). 또 온유한 자는 받은 바 은혜에 자족하며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영적으로 부요하며, 결

코 자기의 분수를 잃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모두 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고전3:21, 22).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를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즉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점차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계속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자입니다.

셋째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어떤 사람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긍휼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란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와 긍휼을 혼동합니다. 은혜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것을 말하며, 긍휼은 불행한 자, 소망이 없는 비참한 자가 사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나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자비나 사랑이나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서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

신 것은 긍휼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신 것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웃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청결한 마음이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된 단순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3차 홍해작전 캠페인(3)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

“힘을 다해 봉사하자”

오늘 우리 사회는 남을 위한 봉사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쾌락과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주의로 치달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천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저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33%, 부동산 매입이나 증권 혹은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50%,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사람은 봉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일할 마음이 없거나 일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오

부터 거절된다. 우리는 평생봉사의 차원을 더 심화시키고 봉사의 모습을 더 가다듬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봉사의 열매들을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로,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칭찬과 격려를 생활화 한다. 힘을 다한 봉사의 자체는 남을 섬기고 높여주며 대접하려는 데서 이루어진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전에는 진정한 타인 봉사는 가능하지 않다. 나를 비우고 나를 여지없이 희생하고 부인할 때 봉사의 나무에는 실제로 열매

우리 교회에서 차량 출입 및 주차시, 그리고 식당 등에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자.

셋째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았을 때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충분한 부비까지 내주는 이런 사랑을 실행하여 보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남을 존중히 여기고 칭찬과 격려를 생활화 한다.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운다.

늘 우리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생명과 건강한 기회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봉사하되 힘을 다하여 하자. 봉사의 힘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 내 힘도 다하여야 한다.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만 미루거나 옆사람만 쳐다보는 것은 봉사자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힘을 다하여 봉사하자. 기쁨과 감사가 없이 투덜대며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로

가 땀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호와 명분의 외면 무성하게 될 것이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격려에 풍성하도록 하자.

둘째로, 준법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과 질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법은 무시되고 질서는 구시대적 유물같이 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탈법과 무질서를 일삼는 사람이 인기를 얻기까지 한다. 우리는 국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있다. 손해가 되어도 국법을 앞장 서서 준수하고 마땅히 바쳐야 할 국세를 바치자.

주는 최고의 사랑을 늘 나타내도록 힘쓰자.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자신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 절제하고, 이웃에 대한 윤리 생활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성실히 질 뿐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봉사 생활을 통하여 제3차 홍해작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나아가자.

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과연 말씀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예”라고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아야 한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하고, 소경이 같은 처지의 소경을 인도하는 식으로 남도 울무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없다.

오늘처럼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은 흔하지 않았다. 한국 초대교회의 순교자적인 아름다운 전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자유주의 신학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사이비 신앙이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무성해 있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홍해작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다 큰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과소비를 일삼는다.

기독교인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축복)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충실하라는 의

홍해작전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

홍해작전 첫날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화합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데 홍해작전을 통해서 온 교인이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겠다.

이창호
장로

홍해작전의 첫날은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교회 안에서 온 교인이 사랑으로 하나되고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홍해작전의 기도 제목대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현계식
권사

천국시민의 생활운동인 홍해작전에 열심히 참석해야겠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교인들이 기도로 무장해야겠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염은식
집사

집이 멀고 차편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 은혜중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첫날 참석한 많은 교인들을 보고 중현교회의 저력을 다시금 실감했는데 15일 동안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한다.

이은옥
(청년1부)

이번 홍해작전은 사회적 배경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기가 무척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온갖 향락, 퇴폐로 물든 지금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참가해야겠고 특히 젊은이들이 깨어서 참석해야 하리라고 본다.

김요섭
(대학부)

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자기에게 돌아온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안다면 과소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자신도 모르게 아끼지 않겠는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 써버리고 나서 이웃을 위하여 쓸 것이 있겠는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주머니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는 알맞은 때에 열려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기적인 생활에 젖어 살아왔다. 세상과 역사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망이 있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교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외식적이고 가시적인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회악을 추방하는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천국시민 생활을 실천해야 복음으로 통일 조국을 앞당기는 데 교회가 한 몫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호 세기등은 남순우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김영삼 장로

우리 교회는 새성전 헌당 이후 세번째 홍해작전의 대장정에 임하게 되었다.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이라는 주제와 “힘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절제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자”라는 실천 강령 아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7:12)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 따라서 홍해작전은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개인이나 가정의 성결해지고 절제하는 생활을 일상화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자는 운동인 것이다.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아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평범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가 너무나 평범한 이 말을 실천하지 않

부부교양대학이 올해도 개강한다는 광고에 접했을 때 약간의 흥분과 함께 5월은 몸과 마음을 곁게 단장하고 오랫동안 남편과 데이트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강 신청을 했다.

개강날이 되어 함께 가자고 하니 남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강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 내용도 별로 신통치 않으니 그렇게도 원한다면 테이프를 통해 들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내용이 그리 큰 문제인가. 부부가 함께 나란히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다. 첫

남편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1회때 갈릴리 홀이 차고 넘쳐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던 것에 비해 금번 제3회때에는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나치게 극성을 떨었나 싶기도 하며 마음이 착잡했다. 건강한 가정, 올바른 생활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부강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쇄적이며 연속적인 사슬과도 같은 관계로 볼 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체인 부부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하

첫째로 제1회때 보다는 상당한 숫적인 감소를 볼 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청중(부부)들의 참여가 있지 않다면 좋은 내용과 훌륭한 강사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성도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일방적인 강사 위주의 주입식 강의보다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팀을 편성하여 강의주제에 대한 토의와 부부상호간에 주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

새가정부 6월 6일에 여름계절학교

새가정부는 집중적인 말씀공부와 새가정부 공동체 훈련으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6일 충현기도원에서 여름계절학교를 개최했다.

임마누엘찬양대 노방전도 실시

임마누엘찬양대는 지난 6월 6일 홍해작전 비상새벽기도회와 대청소를 끝낸 후 양재동 시민의 숲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85명의 대원들이 참여한 이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뿐 아니라, 대원간의 유대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4월, 5월에 등록한 새가족환영회 열어

지난 6월 3일 갈릴리 홀에서는 4월과 5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가족들을 환영하는 "충현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이 환영회는 교구별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김영구 목사의 사회와 이종운 위임목사의 환영의 말씀, 박명신 교수의 특별 찬양, 교구 교역자 장로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새가족들은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행해진 이번 여름계절학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찬양의 시간과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멘오케스트라 9월에 창단 예정

찬양위원회는 아멘오케스트라를 오는 9월에 창단하기로 하고 현재 단원 모집을 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는 아멘찬양대와 함께 주일 4부 예배 때 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각종 악기 연주에 은사를 받아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찬양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

초등 4부 주일 오후예배, 수요 저녁예배 부활

초등 3부와 5부에 이어 초등 4부가 수요 저녁예배와 주일 오후예배를 시작한다. 주일 오후예배는 10일부터 매주 오후 1시에, 수요 저녁예배는 13일부터 오후 4시에 소석관 514호에서 드린다. 초등 4부 어린이들은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오후예배와 수요 저녁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부부교양대학 수강 소감

다른 교회에서는 접하기 힘든 교양 프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부부관계 형성에 기여

전계식 · 조증선 집사 부부

날은 선약이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 갈릴리 홀에 들어서면서도 불 일을 적당히 마치고 달려오지나 않을까라고 기대하며 수차례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나는 세상적인 사치나 허영심으로 바가지줄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교회의 행사에 남편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고도 아름다운 꿈이 남편의 반대로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같아 몹시 속상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좀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간절히 애원하여 두번째 강의부터는

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과 맥락에서 제3회는 '건강한 가정 올바른 생활'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부부교양대학은 다른 교회가 기획하여, 실행하지 않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큰 신선미를 안겨다 준 획기적인 교양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의 잔치에 있어서 명실공히 교양대학으로서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또 개강일 훨씬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강사를 선정하여 그 강사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중점적인 내용을 열심과 성의를 다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혼부부에서 금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식과 수용능력이 너무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여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뚜렷한 개성과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충현교회 전부부는 물론이요, 타교회 부부들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충현부부교양대학이 날로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4 과 제 4 계명

성경 : 출 20 : 8~11

요절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 : 8)

찬송 : 40, 57

제 57 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하신 것입니다.

제 58 문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 59 문 하나님께서 칠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시까지의 하나님께서 매 주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 주 첫째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찾아야 할 성경구절 : 창 2 : 2, 3; 출 20 : 8~11; 신 5 : 12~14; 행 20 : 7; 고전 16 : 1, 2

설 명

안식일은 오실 메시아(초림)를 기다리는 상징의 날로서 거룩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상징의 날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과 성경적 사실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일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로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안식일이란 단순히 휴식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영육이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질 문

1.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입니까?
2. 주일은 무엇을 근거로 지키니까(요 20 : 1, 19)?
3. 오늘날의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